

[열매 맺는 아웃리치 2]

열매 맺는 아웃리치

김마가 선교사 / 2003 / 페이지 수: 2

여호수아 1장 11절에 '얻게 하시는' 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취하라'는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며 모세가 강조하는 것과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 모세 시대에는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가서 취하라'는 것이다.

새 시대에는 새 비전이 있다

서로 다른 시대에는 다른 비전과 임무가 있다. 우리 이전 시대는 한국을 복음화 시키는 것이 비전이였다. 우리 윗세대가 그 비전을 이루려고 노력했기에 우리는 그 결과물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를 보고 있다. 그러나 새 시대에는 새 비전이 있다. 단기와 장기 선교를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세대의 임무는 10/40창에 있는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변해야 한다. 선배의 모습을 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앞에 열리고 있고 우리가 움직이려는 선교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을 기대해야 한다.

단기 선교 팀이 해야 할 일

단기 선교 팀이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첫째, 팀장이나 팀원 누구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아무도 말려선 안 된다. 과거의 경험을 내세워 새로운 시도를 막지 마라. 때로 사고를 칠 수도 있지만 그 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단기 팀이 선교하는 것을 보며 정체해 있던 현지 선교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선교지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런데 '불안'은 하나님의 것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두려움은 우리의 움직임을 묶고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게 한다.

두려움에는 이라크의 무정부상태 같은 실질적인 위협의 두려움도 있지만 대부분은 문화 차이에서 오는 관념적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자기가 느끼는 두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아웃리치 팀이 오면 지도 한 장과 생활하는데 기본이 되는 생존 언어 십여 가지를 가르쳐주고 '어느 지역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와라' 같은 임무를 준다. 이 임무를 하고 오면 생존 언어 열 가지로 3개월은 이곳에서 살겠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겠는가? 그 때 하나님의 세세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구체적인 확신과 기쁨을 얻는다.

셋째, 선교지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라합’은 기생으로 당시 그의 도움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렵다. 우리의 선입관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우리가 선교지에 무언가 해주고 온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먹을 것이나 돈 등을 잔뜩 들고 가서 현지인에게 항상 주려고 한다. 그 이면에는 ‘우리 교회가 낫고 우리가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다. 현지인에게 도움을 받아보면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돕고자 하는 사람이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베푸는 것이 아닌 존귀한 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

넷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한다. 정탐꾼은 추적 대에게 쫓기는 처지고 라합은 그들을 숨겨 보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흥미롭다. 보호하고 있는 라합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쫓기는 정탐꾼은 구해주마고 말한다. 이미 이 성을 다 점령한 사람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을 초월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아웃리치를 가면 돌아올 날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혀 가야 한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이 변할 것을 기대하라. 돌아오려는 자는 그 땅에 관심이 없다. 땅을 밟으며 기도를 넓히고 그 땅의 소유를 주장하는 영적 욕심을 가져라. 그리고 아웃리치에서 돌아와 그 땅을 위한 일군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

*** 출처 : 온누리신문**